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식중독 예방 식품판매업 특별점검

정읍시가 지역 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습도와 기온 상승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잇따른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식중독 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9년 전라북도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108명으로 전년도(11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이 전체 식중독 증감의 큰 변동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재료 공급·보관 등 초기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7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동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반려정원체형 진행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동진면 풍산마을에 위치한 정원카페 '포레도'에서 위거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반려정원 체형'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관리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택에서 원예체험장까지 차량이동 및 일대일 동행체형을 하는 등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편, 체험과 더불어 기초건강 상태(혈압·혈당) 측정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건강상담이 이뤄졌으며 완성된 반려식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마련하여 참여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명신 동진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우울감이 가중되지만 어르신들이 실내정원에서 반려식물을 만들고 초록빛을 보며 기운을 얻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ㄷ·ㄹ하다리' 막바지 공사 순조

정읍천 뱃꽃로·천변로 연결 랜드마크... 10월 본격 개통 야간경관조명 설치, 즐길거리·볼거리 갖춘 다리 변신중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ㄷ·ㄹ하다리'가 올해 10월 본격 개통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ㄷ·ㄹ하다리'는 매년 봄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나들이객에게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다리다.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길이 73m, 폭 5~10m의 인도교를 신설한다. 여기에 백제가요 정읍시와 항공공화국 정읍을 컨셉으로 한 야간경관 조명이 설치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모를 통해 'ㄷ·ㄹ하다리'라는 명칭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차도교 상부 슬래브와 인도교 바닥판을 시공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ㄷ·ㄹ하다리'가 완공되면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지 중심 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단순하게 정읍천 위를 지나는 교량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상징성을 담아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야간경관 조명을 통해 행사 나간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여인의 간절함을 표현해 백제가요 정읍시의 서정과 아내의 지순한 사랑을



정읍천의 뱃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ㄷ·ㄹ하다리'가 올해 10월 본격 개통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 담아낼 예정이다.

또, 바람에 흩날리는 꽃들 사이로 퍼지는 향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향기공화국 정읍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꽃향기를 눈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교 중앙부를 문화공연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도심 속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하는 등 정읍천 이용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왕술밭 공동체 정원' 힐링 공간 자리매김

텃밭·어린이 놀이터 등 갖춰 농작물 직접 수확 기쁨 만끽

정읍시 내장상동에 위치한 도심 속 텃밭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총면적 6천 281㎡의 왕술밭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공동체 정원에는 텃밭 가족들과 시

민들을 위한 친환경 텃밭과 어린이 놀이터, 야외 교육장, 원주막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련해서는 도심 속 시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웃 간 상호교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정원 내 텃밭 52개소를 분양했다. 시민들은 분양된 텃밭에서 가족 단위로 직접 퇴비를 뿌리고 상추, 부추, 가지 등 모종을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체험을 통

해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이웃과 함께 농산물을 나누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올해는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도 설치해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원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아이들과 외출이 힘들었는데 도심 가까운 곳에 정원이 있어 텃밭도 가꾸면서 산책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장애학생 생활체육 지도 본격

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2명)를 배치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특수학교를 비롯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한다. 또 성인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군은 3월부터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었다.

이후 8월들어 상황이 호전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느티나무 등 8개소에서 뉴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레크리에이션, 근력 배드민턴 등 8종목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창군은 장애인 체육 참여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장애인체육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5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고창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5곳 선정

고창군 5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선정 마을은 산림청장상을 시상한 심원면 용기마을 이장 김성권 1명과 현판을 수여받은 심원면 용기마을(이장 김성권), 고수면 신기마을(이장 박석주), 해리면 행산마을(이장 김봉현), 성송면 사내마을(이장 정석환), 부안면 인촌마을(이장 정봉태) 등 총 5개 마을이다.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발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서약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300개 마을, 전라북도에서 37개 마을이 선정됐

다.

고창군은 그동안 관내 모든 마을 산림연접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명 운동 등으로 산발예방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마을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협력해 산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산발예방에 관심을 가져 지속적으로 산발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뱀장어 양식 최첨단 기술 접목"

고창군, '2020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공모 선정

과거 노동력과 환경에 의존했던 장어 양식에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고창군 어가 부담을 훨씬 줄여줄 전망이다.

전북 고창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분야(생산·가공·유통 등)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수산 ICT융합 사업을 지원해 수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뱀장어양식장 표준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수산분야 장·단기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 선정과제는 ICT기반 뱀장어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장

어 양식에 중요한 수질(용존산소, pH 등)을 측정 장비로 실시간 제어,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장어를 키워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대상 양식장은 심원면 용기리에서 28개의 수조를 보유해, 최대 약 150톤 물량의 뱀장어를 양식할 수 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접목될 경우 폐사율 감소, 약화산소 비용 절감, 사료효율 향상으로 연간 최대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양식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 극대화 및 양식 어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